

국내외 이어 승가대학원까지 장학제도 ‘안착’

조계종 교육원, 2014 장학금 선발 요강 발표

2010년부터 시행된 조계종 장학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 국내외 대학에서 수학하는 스님에 대한 정기적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사찰승가대학원의 스님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는 10월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단 장학금 선발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종단 장학금 선발 분야는 응용불교학, 불교문화, 불교사, 언어학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종단 내 연구가 부족한 계층과 근현대 한국불교사, 종교법인에 대한 연구자를 우대한다. 종단 장학금 선발 대상도 국내 장학생 6명, 해외 장학생 4명에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생 20명이 추가됐다.

국내·외 장학금은 불교학(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계율)과 불교사(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일본불교사), 불교문화(불교 문화, 예술, 건축, 콘텐츠), 응용불교학(불교윤리학, 종교법무, 불교사

회학, 비교종교학, 철학일반, 불교심리학, 사회복지정책), 언어학(불전언어, 일반언어) 등의 분야에서 선발한다.

또한 사찰 승가대학원 장학금은 율학과 선학, 한문불전, 초기불전, 종관유식, 특정교학(능엄, 화엄) 등에서 선발한다.

국내·외 장학금은 해당 과정 수료 시까지 최대 4학기동안 등록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며, 사찰 승가대학원 장학금은 1년 단위로 연구비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장학금 제도는 2010년 6월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그간 조계종 차원의 장학금 선발은 해외에서 수학하는 스님들에게만 한정돼 있었고, 지급인원과 금액이 불규칙해 일회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령’의 제정으로 종단 인재양성에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제 해외 유학생 중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연간 3000만원, 일본은 1200만원, 중국은 1000만원, 인도와 동남아는 8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내에서 수학하는 스님은 일반대학의

또한 학업을 마치고 나서 일정 시간을 종단에서 활동하게 해 인재 활용의 기회도 열어놓게 했다.

장학제도 1기생인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석중 스님은 “안정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또한 종단 장학금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제도는 인재 양성의 중요한 매개체”라면서 “종단 장학금 선발 대상과 분야를 확대해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통해 배출된 인원은 모두 종단의 큰 동남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종단 장학금 희망자는 오는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수학계획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조계종 교육원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 경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와 더불어 개별통지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대학원 포함 30명 선발 근현대사, 법무 분야 가산점

종단 내 연구 인력 양성 목적 2010년 法 제정... 14명 혜택

최대 3000만원까지 학비 지원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해야”

경우 석사 과정은 연간 900만원, 박사과정은 연간 1000만원을 지급한다. 종립대학은 각각 석사 과정 450만원과 박사 과정 5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쿠르트 코흐 추기경은 11월 1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했다.

“종교 간 대화로 세계를 평화롭게”

코흐 추기경,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예방

로마 교황청의 쿠르트 코흐 추기경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하고 종교가 이뤄낼 수 있는 평화의 가치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로마 교황청을 대표해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 총회에 참석한 코흐 추기경은 11월 1일 해운정사를 방문해 진제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서 진제 스님은 “종교 간 대화와 화해를 통해 여러 이유로 고통 받고 있는 인류를 위해 종교가 앞장서야 한다”며 “해운정사는 평화의 불을 모신 평화탑

이 있는 곳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발원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함께 평화를 위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코흐 추기경은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기 바란다”며 “베네딕트 16세 교황 역시 종교 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설파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7대 종단 한국종교협의회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종(광주대교구 교구장) 대주교와 아시아 주교회의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위원장인 마차도 대주교 등이 함께 했다.

신종일 기자

사찰 화재 예방 지원 활동 활성화

문화사업단, 소방학회와 MOU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10월 29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화재예방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 장 정산 스님과 백동현 소방학회장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사업단 측은 소방학회의 전문을 받아 사찰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소방학회 또한 템플스테이 참여 기회를 제공받아 전통 목조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화재 예방 캠페인 및 연구를 하게 된다.

정산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 템플스테이 사업 제휴와는 다르다”며 “사찰들이 소방방재에 관한 무지함에서 벗어나 불교문화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업무협약 의의를 평가했다.

백동현 소방학회장 또한 “사찰에 가보니 소방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 소방 점검 및 자문 협조를 통해 송례문 화재 같은 문화재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체결 이후 문화사업단은 소정의 선물을 소방학회 측에 전달했고 학회 또한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를 전달했다.

백현진 기자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장 스님과 신도 임원이 시삽을 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대작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새 도량 ‘첫삽’

10월 26일 기공식...어린이법당·해수관음상 등 2015년 완공

통영시민들이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마음공부를 배울 수 있는 새도량이 건립된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은 10월 26일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새도량 기공식’을 거행했다. 기공식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혜월 스님(광주지원장), 혜도 스님(부산지원장), 혜술 스님(대구지원장), 청백 스님(광명선원 지원장) 등 각 지역 지원장 스님과 신도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 불교도의 노래, 뜻으로

훈 반야심경, 경과보고, 화합제, 시삽, 주지 스님 말씀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주지 혜연 스님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혜수 스님은 “통영지원은 1990년대 초에 마산, 진주에서 공부하던 통영 불자 몇 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개원을 발원해오다 대행 스님께 청을 드려 1997년 개원하게 됐다”며 “통영 신도님들은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승과 속을 따로 두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 이곳이 확산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통영 지원은 1997년 3월 경남 통영시 도천동에 개원, 2004년 8월부터 통영시 광도면에 2만19752㎡의 불사터 매입을 시작했다. 이후 6차에 걸쳐 현재까지 9만2561㎡(2만 8000여평)를 매입했다.

통영지원은 대지 9917㎡ 법당 두동을 건립할 예정이며, 도량탑, 해수 관음상을 모시고 어린이 법당도 건립할 예정이다.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100여명의 통영지원 신도들과 각 지원장 스님 및 신도들의 지극 정성한 발원으로 불사금을 조성해 도량터를 매입할 수 있었다”며 “새도량이 건립되는 이곳은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발암산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또한 1만여 시민이 거주하게 될 죽림신도시와 가까워 통영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마음도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영=이나라 기자 oasis1983@hyunbul.com

“유영익 국편위원장 종교편향적 사고 문제”

주호영 의원,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지적

기독교 편향적 역사관으로 임명 전부터 불교계 안팎으로 문제가 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종교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에게 “개인 종교로서 신앙을 가지는 것과 공직자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 그걸 표출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이 업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제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겠나”고 질책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정치, 사회, 외교, 경제, 군사 등에서 여러 면으로 분류해서 따질 때 종교 분야 등

에서...”라고 해명하자 주 의원은 “구구한 해명을 듣고 싶지 않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 의원은 “본인이 한 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에 맞는 지 점검해보라”고 힐난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부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종교 편향적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불교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임명을 철회하라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10월 24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의 자승 스님 예방에서도 前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유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불교계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일 기자

자정센터 직선제 제안

10월 선언...좋은 보시 운동도

참여불교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종규)가 ‘재가불자 10월 선언’을 했다. 교단자정센터는 10월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법의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 34대 총무원장 선거는 민의의 예곡, 사부대중의 소외, 종법 위반으로 치러졌다”며 “종단의 대표성이

부재하고 신뢰성을 상실한 현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총무원장 직선제를 위한 중헌개정을 완수하고 임기와 상관이 없더라도 김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단자정센터는 청정한 교단문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보시 운동 △재가자 법회와 정진 전개 등을 펼친다. 이를 위해 교단자정센터는 범계 행위에 연루된 사찰에 보시하지 않기로 권고하고 사찰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日江 스님께서 정리하신 알기쉬운 상용의식과 신간저서 안내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아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창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창표지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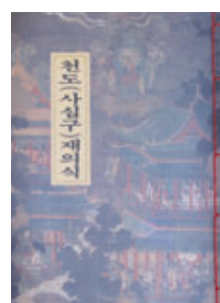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 점안 의식은 이 책 한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 불공, 관음시식 등 재의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의식집 (2010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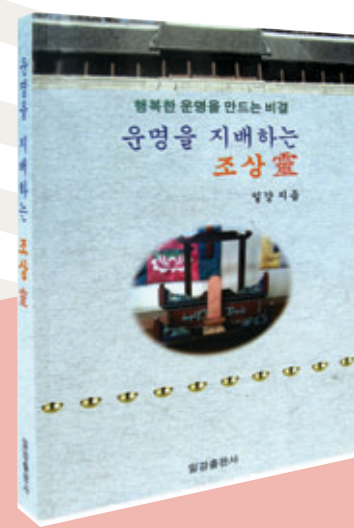
누구나 간편히 가다리던 의식집, 승가 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일체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신간 고사와 치성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값: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



고사와 치성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삼치림, 준비물, 방법까지도 알기 쉽게 쓰여있어 초보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6배판 1144쪽 | 값 13,000원